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Promotion of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 Young Adults

황 금 속(Gum-Sook Hoang)**

김 수 경(Soo-Kyoung Kim)***

장 지 속(JI-Suk Jang)****

목 차

- | | |
|--------------------------|-----------------------------|
| 1. 서 론 | 3.2 요구분석 및 제안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1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기본 정책방향 |
| 2.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 현황 | 4.2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
| 2.1 국외 | 4.3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전담조직 구성 |
| 2.2 국내 | 4.4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추진방향 |
| 3.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요구 분석 | 5. 결론 및 제언 |
| 3.1 조사개요 | |

초 록

어린이·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독서습관을 배양하여 평생교육으로 유도하는 국가적인 독서문화 진흥 방안이 절실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청소년으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독서문화가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선진적 독서문화 진흥 모델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문헌조사, 2) 사례조사, 3) 설문조사, 4)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기본 정책 방향 수립, 2)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3)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전담조직 구성, 4)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 제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dvanced methods for the promotion of a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domestic and overseas reading policies and activities, and collected extensive opinions from public officials, teachers, librarians, activists of reading campaign, parents, children, and young adul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to establish the basic policy direction,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reading culture environment, to set up the dedicated organization, and to suggest the vision, goal, strategies, and tasks on the promotion of a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키워드: 독서문화, 독서문화 진흥

Reading Culture, Reading Culture Promotion

* 본 연구는 2010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지원비를 받아 작성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의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gshoang@daelim.ac.kr)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skyoungkim@pusan.ac.kr)

**** 교하도서관 관장(viaself@gmail.com)

논문접수일자: 2011년 4월 17일 최초심사일자: 2011년 4월 18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5월 1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277-308, 2011. [DOI:10.4275/KSLIS.2011.45.2.27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금 세계 선진 각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까지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교육 및 독서문화¹⁾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과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의 지적 능력과 창의력 증진이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시점에서 어린이·청소년기부터 체계적인 독서문화 활동을 통해 독서습관을 배양하고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독서문화 진흥 방안이 절실하다.

그러나 지식정보사회의 미명 아래 컴퓨터 확산, 인터넷의 등장 및 영상매체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의 독서량이 점차 줄어가는 것과 더불어 책을 중심으로 한 활자문화의 영향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이다.

우리나라 독서율을 살펴보면 성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한 권의 일반도서를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한 학기 독서율은 월평균 78.4%로 학생 4명 중 1명은 한 달에 1권의 책도 읽지 않으며 이는 초등학교를 정점으로 초·중·고 순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독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09).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율 감소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 매체환경의

변화와 과도한 입시경쟁에 기인하며, 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의 독서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있지 않으며, 장기적인 제도화와 효율성을 기하기보다 즉시적이고 중복적이며 전시효과적의 측면에만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각 도서관간, 지방자치단체, 독서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독서문화 관련 활동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청소년으로 하여금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독서문화가 전개될 수 있도록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선진적 독서문화 진흥 모델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내용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비전 및 목표를 수립.

둘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셋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

1) 「독서문화진흥법」제2조 정의에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 2009.3.5 법률 제9470호]).

넷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

본 연구는 국내·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을 조사 분석하고 민·관 협력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1) 문헌조사, 2) 사례조사, 3) 설문조사, 4)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2.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 현황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²⁾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2.1 국외

국외의 경우, 문헌조사 및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비교적 독서문화 진흥 정책 및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선진 5개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방향 및 선진 독서활동의 지향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들 선진 국가의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1 독서문화 관련 정책 및 활동

첫째, 도서관의 기본 인프라 구성 및 확충이 필요하다. 즉, 문화적 소외 방지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확충 및 시설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은 'Reading Excellence Act', 'No Child Left Behind', 일본은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법안', '문자·활자 문화 진흥법안', 프랑스는 '독서발전을 위한 14가지 제안' 등을 통해 독서문화진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의 정보 디지털화 및 아카이브화가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도서관이 정보화의 중심에 위치하여 지역에서 독서활동 및 문화유산콘텐츠의 아카이브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작은 마을에까지 위치해 있는 도서관은 독서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정보화사업에도 앞장설 수 있다.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단체와 정부주도 활동에 관한 정보를 네트워킹하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핵심역할을 하는 기관은 부족하다. 영국의 'National Literacy Trust', 미국의 'Reading is Fundamental(RIF)', 프랑스의 'Savoir Livre', 독일의 '독서재단(Lesestiftung)' 등 독서문화 진흥을 앞장서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

다섯째, 정부 지원금 및 외부의 재정 협찬이 중요하다. 영국의 '채터박스'를 후원하는 기업인 오렌지 사, 독일의 '귀로 읽기'를 재정 지원

2)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조사 분석은 그와 관련된 문헌조사 및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자세한 참고문헌은 황금숙 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10.12)을 참조할 것.

하는 브로이닝 재단 그리고 실제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Leseohren이나 LAPL의 GAB을 위한 'Grandfather'와 같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처럼 도서관 외부에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재정과 프로그램 후원을 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문화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도서관 입장에서는 홍보효과 및 재정 지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서관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국제독서협회 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와 같은 독서 관련 연구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독일의 국제청소년도서관, 일본 국제어린이도서관에서는 해외장서 개발 및 연구, 해외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2.1.2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첫째, 전 세계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책과 친근해지는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독서활동들을 권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Premières Pages', 영국의 'Bedtime Reading', 'Book Start', 'Reading Champion', 'Book Token', 'Reading is Game', 미국의 'Reading on the Knee', 'ROR(Reach Out and Read)', 독일의 '책을 잡아라', 일본의 '아침 10분 독서운동' 등이 있다.

둘째,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독서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부모, 부모, 자원봉사자 등 어른이 책을 읽어주면서 어린이들이 책과 친해질 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진다. 미국의 'GAB'이나 독일의 '귀로 읽기', 영국의 '채터박스' 모두 어른이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함으로써, 독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싱가포르의 'Born to Read, Read to Bond', 영국의 '북스타트'가 있다.

셋째, 21세기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새로운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통합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독서를 장려하면서 고립된 인쇄매체로서의 역할만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활용하여 책에 대한 친화감과 책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영국의 TRA(*The Reading Agency*)는 문제 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활동으로 다양한 독서관련 멀티미디어 예술 활동을 개최하고 있으며, '헤이온와이' 책 마을 축제는 하나의 문화축제로 세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나는 우리 마을에서 책 읽기를 좋아해(J'aime lire dans ma ville)'와 '우리 마을은 책 읽기를 좋아해(Ma ville aime lire)'라는 두 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인 '독서전투(Bataille de la Lecture)'를 전개하고 있으며, 독일의 독서재단은 멀티미디어 산업체('타이타닉'과 '한 여름 밤의 꿈'과 같은 영화)와 손잡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 신인작가상을 공모하는 등 독서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국의 '채터박스'는 토론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고양하고 있으며, 'GAB'에서는 대화형 독서를 채택하고 있다.

넷째,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영국의 'Book Fund', TRA(*The Reading Agency*)의 프로젝트, 미국의 'First Book')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2.2 국내

국내의 경우,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정책 및 활동 사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정부, 도서관계, 지자체, 독서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2.1 정부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사회로의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선진국들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21세기 국가 비전의 성패가 창의력 있는 국민 개개인에게 있다고 보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독서력이

저하됨에 따른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독서진흥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여 왔다(〈표 1〉 참조).

이상에서의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2007년을 ‘독서진흥의 원년’으로 삼고 ‘책 읽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독서문화 진흥에 노력을 해 왔었다. 이에 2008년 5월에는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을 토대로 국민 독서 활성화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추진전략 과제를 제시하는 등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09년~2013년)’을 수립하여(〈표 2〉 참조) 독서문화 진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독서

〈표 1〉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률 현황³⁾

법명	주요내용	비고
도서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비 •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역 단위 도서관 정책과 행정 강화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운영 • 제12조 독서교육 강화 	2006.10. 개정
독서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독서진흥정책 근거 마련 • 문화관광부, 5년마다 국민독서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 전 국민에게 독서교육 기회 제공 • 지역, 학교, 직장에서의 독서 진흥 • 관련 부처간 공조 유도 등 	2006.12. 제정 2008.2. 1차 2009.3. 2차 일부개정
학교도서관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 설치 •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 지원 위한 세부계획 수립·시행 	2007. 제정 2008.2. 일부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7.7.19 (법률 제8533호)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인쇄에 관한 사항 및 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쇄문화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2007.7.19 (법률 제8532호)

3) 2009년 7월 30일 현재 독서진흥 관련 법률 현황.

〈표 2〉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안

비전	독서의 생활화로 국민 행복지수 제고 및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			
목표	국민 독서 활성화			
전략과제	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 사업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단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독서환경 조성 • 가정의 독서환경 조성 • 어린이집, 유치원 독서환경 조성 • 학교의 독서환경 조성 • 직장의 독서환경 조성 • 우수도서 출판/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 독서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 • 독서정보DB구축/운영 • 독서동아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계기별 독서운동 • 다양한 매체 활용한 독서운동 • 국내/외 우수사례 활용한 독서운동 • 소외계층 대상 독서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 노인 독서활동지원 • 병영 독서활동지원 • 교도소 독서활동지원 • 복지시설에서의 독서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의 독서활동 지원 • 독서장애인 관련제도 정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부처(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에서도 활발한 독서문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독서문화진흥 법률 및 관련 부처의 정책과 추진내용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안들(『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이 서로 상충 및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독서문화진흥법』의 경우 보다 실천적인 독서문화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다 성공적인 독서문화 진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제별 추진기관(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지자체 등) 공무원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셋째, 독서문화진흥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는 것은 고무적이거나 여러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도서관계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관련부처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및 추진사업에 대한 실효성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2.2.2 교육계

독서와 관련된 개인 및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각 시·도 단위 교육청마다 독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하여 학교 독서교육에 대한 권고 및 관리감독을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위주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국어교과의 선택과목으로 <독서교과목>을 신설한 것은 매우 획기

적인 독서교육 방안이었다. 그러나 독서교과목이 가진 문제점은 독서교과서의 내용 구성에서 '독서의 이론과 방법'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가르치고 있고 실제적으로 독서교과목 시간이 제6차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설령 그 시간을 확보하고 있다 하여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과목으로 대체하여 수업을 하거나 필요한 다른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른바 독서교과목은 대입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에 일선 학교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추진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본시설로서 독서를 통한 인성교육은 물론 교수-학습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아직까지 전문 사서교사의 미배치, 빈약한 예산, 법적근거 및 제도적 장치 미흡과 더불어 입시경쟁 체제의 교육제도로 인하여 교육과정과는 동떨어진 단순한 교양도서와 참고서만을 비치하여 대출하거나 학생들의 시험공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본시설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최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2008년 대입개선안에 따른 '독서이력철'의 도입, 2010년부터 시행되는 독서교육 지원시스템 도입과 서울시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 개발, 부산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독서인증제 등은 지금껏 학교

독서교육이 입시로 인해 파행을 겪었던 것을 교육당국이 학교 독서를 대학입시와 연계함으로써 고등학교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정면 돌파 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나 몇몇 교육청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들은 독서의 본질을 왜곡한 기능 및 학습위주 독서로 유도하는 등 오히려 독서교육의 파행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독서교육의 사교육 시장을 조장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바람직한 독서교육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2.3 지방자치단체

2006년에 제정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매 5년마다 수립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2010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장지숙 등(2010)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홈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2010년 업무계획을 공개한 자치단체 중에 독서진흥 사업을 중장기발전계획이나 2010년 업무계획에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는 3곳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광역시였다. 또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홈페이지에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2010년 업무계획을 공개한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독서진흥 시책을 포함한 자치단체는 16개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양주시, 안산시, 파주시, 강원도 평창군,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시,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상남도 김해시, 거창군이였다. 이중에서 경기도(도서관정책담당), 파주시(도서관정책팀), 김해시(도서관정책과), 순천시(도서관운영과)와 같이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을 관할하는 전담조직에서 독서진흥 시책을 담당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 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도서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추진단위별로 시행되고 있으며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각 시·도에서 취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 및 학교단위 독서문화진흥사업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취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된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추진 현황은 시·도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활발하게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도서관에서 독서문화진흥 사업 대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 등 각 지역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은 추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 지자체의 경우 관할 시·군·구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시행계획을 취합하여 중앙으로 제출하는 소극적인 수준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독서문화진흥법』 제 6조 제1항에 의하면 연도별 시행계획은 해당 연도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 수행 계획, 그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수립한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의 대부분이 세부 추진과제만을 취합하여 작성되어 있을 뿐, 지역단위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단기 행사 위주의 독서관련 사업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력과 재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독서관련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독서문화진흥 사업간, 지역간의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2.4 도서관계

도서관은 독서문화 증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국

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각 시도단위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어지고 있는 독서문화 관련 활동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를 거듭할수록 행사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보다는 조정과 평가에 의해 프로그램 운영의 질을 높이고, 효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도서관에서 연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독서문화진흥 활동도 있으며, 일상적으로 연중 이루어지는 독서문화진흥 활동, 방학을 이용한 활동, 9월 독서의 달 등 특정 달에 집중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그리고 한시적인 기획 행사 등 다양한 독서문화 활동이 개별 도서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도서관에서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이 진행됨으로써 각 도서관이 처한 위상, 지역적 특성 등을 살린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역사적 가치 및 에너지가 집중되고 효율적으로 공유되어서 좀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듯하다.

둘째, 각 도서관의 위상과 처한 상황에 맞는 고유한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사업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유명 작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내용을 듣는 저자와의 만남인 '작가와 함께 여는 책 세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활동에서 가장 선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은 단연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각종 전시회, 심포지엄, 자료집 발간, 디지털 자료 구축 및 전자갤러리 운영 등을 통

해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는 국립도서관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는 일, 사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고, 전국도서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자료 구축,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국책사업을 실행하여 개별 단위 도서관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개발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각급 도서관에서 그대로 실행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단위 공공도서관에서는 각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 독서캠프, 독서의달 행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부평기적도서관에서는 '책을 만난다. 친구 생각+내 생각'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년째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셋째,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높은 몇몇 독서문화진흥 활동은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보급하거나, 매뉴얼 형태로 발간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에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책읽기를 통한 연극놀이', '1318 책벌레 점령기' 등의 활동은 다른 도서관에 모범이 된다.

넷째, 우리나라 도서관의 기본 인프라에 비해 도서관에서 효과적으로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설, 자료, 인력이 선진외국의 도서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 보다는 우선 실적위주의 행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과도한 업적주의 평가가 우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일이다. 도서관 사업에 대한 업적 위주의 양적인 평가보다 각 도서관의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질적으로 우수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2.5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

현재 국내 독서 및 도서관문화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 및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독서 및 도서관 문화운동을 통해서 책 읽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는 단체와 독서교육을 중점에 두고 학회활동, 독서지도사 양성, 독서능력인증시스

템 개발에 주력하는 단체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표 3> 참조), 이들 단체들의 주요사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향후 과제를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민간단체 부문에서 추진되어지고 있는 독서 및 도서관문화 운동의 목적과 활동에 있어 단체 간 연계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활동내용이 많은 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일부단체를 제외하고는 상호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계활동이 부족하다. 각 단체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배치와 단체 간 상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단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논의구조가 필요하다. 관련단체가 참가하는 정기워크숍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방안에 대

<표 3> 독서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현황

구분	독서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독서 및 도서관문화 관련단체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대한출판문화협회 • (사)새마을문고중앙회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 (사)행복한 아침독서 • 도서관친구들 • 서울독서교육연구회·책고리 • 자녀와 함께 30분 책읽기운동 • 책으로따뜻한세상을만드는교사들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한국도서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사랑의책나누기운동본부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사)한국사립문고협회 • (사)한국출판인회의 • 느티나무 도서관재단 • 독서문화연구소 • 인표어린이도서관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모임 •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독서교육 및 독서능력평가 관련단체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 (사)한국독서문화재단 • 국민독서문화진흥회 • 독서능력평가원 • 한국독서교육개발원 • 한국독서치료학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한국독서능력개발원 • 교보문고 READ • 독서교육연구소 • 독서토론사회실천연대 • 한국독서지도연구회 • 한국독서학회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독서이력철, 입학사정관제 등 입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서문화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간단체 및 대학의 평생교육원의 독서 및 논술지도사 양성이 또 하나의 독서사교육 시장을 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부 단체의 경우 도서목록선정과 독서인증시스템을 결합하여 어린이·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습독서, 기능독서를 유도함으로써 독서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있는 우려마저 자아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범국민독서문화운동이 필요하다.

독서의 궁극적인 목적, 실현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단체가 함께 모여 '따로 또 같이' 진행하는 범국민독서문화운동이 필요하다. 각 민간단체의 설립 목적에 따른 활동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단체 간 연합으로 범국민 독서문화운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범국민 독서문화운동을 통해 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높여낼 수 있고 독서문화에 대한 대국

민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요구 분석

3.1 조사개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 집단과 실제 수혜자 집단으로 나누어 2011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배포기관 및 대상 선정은 다음 <표 4>와 같으며 우편설문과 E-mail 설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 내용은 독서문화 진흥 업무담당자, 학부모와 학생별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그 조사항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4> 설문 배포기관(대상) 및 선정방법

구분	배포기관(대상)	선정방법
담당자	교육계	- 교육청관계자: 전국 교육청 소속 독서교육 및 도서관담당 관계자 - 교사: 2010년 여름방학 연수에 참여한 전국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 - 사서교사: 2010년 여름방학 직무연수에 참여한 사서교사
	독서문화 관련기관(단체)	- 전국 독서 및 도서관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도서관계	- 전국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협의회 가입 독서업무담당 사서
수혜자	학부모	- 지역 안배를 통한 도서관 및 독서 문화프로그램 참여 학부모
	학생	- 지역 안배 및 어린이·청소년 구분에 의한 교사 및 사서교사의 협조를 통한 선정

〈표 5〉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조사항목

구분	대항목	소항목
독서업무 담당자	1) 인식과 필요성	- 독서문화진흥 업무의 중요성 - 독서문화진흥 사업 운영의 목적, 문제점, - 전담기구의 필요성
	2) 정책운영 방향 및 기능	-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급선무, - 전담기구의 지원사업
	3) 독서문화진흥 사업	- 성과가 좋다고 여겨지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 - 선진화되기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 - 추진했던 사업 중 추천할만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 -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유 의사 개진
학부모	1) 인식 및 참여	- 자녀의 독서 흥미도 -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인지도, 정보원, 문제점, 참여도, 참여 프로그램 - 만족도 높은 독서문화진흥사업(활동)명,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참여한 동기,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이유, 비참여 사유
	2) 운명 및 사업	-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통해 자녀가 도움받기 바라는 점 -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유용한 정보제공처 -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유 의사 개진
학생	1)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실태	- 독서 흥미도, - 이용빈도(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 독서 빈도, 독서 상황, 종이책 이외의 독서 매체 이용도 - 사교육 독서 참여 현황
	2) 독서문화진흥 사업 참여현황 및 개선점	-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 현황 - 참여했던 독서문화진흥사업 중 재미있었던 프로그램, 불만족스러운 점, 운영 방안,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자유 의사 개진

3.2 요구분석 및 제안

요구분석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 업무 담당자 집단(교육계, 독서문화 관련 기관, 도서관계)과 실제 수혜자 집단(학부모, 학생)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2.1 설문결과 분석 및 요약

(1) 업무담당자

교육계는 일반교사, 사서교사, 시도교육청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담당자가 이에 해당하며, 독서관련단체와 공공도서관 담당 사서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① 독서문화진흥 사업 운영의 목적

독서업무를 맡은 일선 담당자들의 인식은 독

서문화진흥사업의 목적을 독서습관을 통한 평생 독서의 생활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청담당자, 학교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독서관련 단체 담당자들은 모두 1, 2순위는 같은 의견이었다. 1순위는 어린이·청소년이 '어린 시절부터 독서흥미를 고취하고 독서습관을 통한 평생 독서의 생활화'를 꾀하며, 2순위는 '학습 목적의 교과교육에서 벗어나 독서의 본질을 깨닫고 자율적 독서능력 신장'을 꼽았다. 3순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교육청 담당자와 읍면지역 공공도서관 사서들과 독서관체 담당자들은 '국가의 시책으로서 독서를 통한 지식강화와 창의력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였으며, 학교교사들은 '학습능력의 기초교육으로서 독서력의 향상'을 꼽았다(〈표 6〉 참조).

②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문제점으로 1순위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졌고, 독서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주관기관이 여러 군데라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안 된다'를 제일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그 나머지 2, 3순위는 담당자별,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담당자들은 독서문화진흥사업 주체들 간의 협력 미비로 효율성과 중복예산의 낭비를 들었으며, '독서관련 사업이 학습독서와 연결되어 사교육화 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표 7〉 참조).

③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적합한 조직

모두 전담기구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이어 전담조직으로 적합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답변을 하였다. 교육청담당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선진화과를 들었으며, 학교교사, 공공도서관사서, 독서단체 담당자들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꼽았다. 지자체 교육청에서 독서관련 사업 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교육청 담당자들은 조직적으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과부를 꼽았고,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서업무를 운영, 진행하는 학교교사들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꼽았다(〈표 8〉 참조).

④ 독서문화진흥 사업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

먼저 현재 독서문화진흥사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청 담당자와 공공도서관사서들은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심조직이

〈표 6〉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목적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청 담당자	독서의 생활화	자율적 독서능력 신장	지식강화, 창의력 신장
학교교사	독서의 생활화	자율적 독서능력 신장	독서력 신장
사서	독서의 생활화	자율적 독서능력 신장	독서력 신장(대도시, 중소도시)/ 지식강화, 창의력 신장(읍면지역)
기관 및 단체	독서의 생활화	자율적 독서능력 신장	지식강화, 창의력 신장

〈표 7〉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문제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청 담당자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담당기관의 분산으로 효율성 부족	협력 미비로 예산낭비
학교교사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사교육화로의 우려	담당기관의 분산으로 효율성 부족
사서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담당기관의 분산으로 효율성 부족 (대도시, 읍면)/사교육화로의 우려(중소도시)	협력 미비로 예산낭비(대도시, 중소도시)/ 담당기관의 분산으로 효율성 부족(읍면)
기관 및 단체	담당기관의 분산으로 효율성 부족	사교육화로의 우려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

〈표 8〉 전담기구로 적합한 조직

구분	전담기구로 적합한 조직
교육청 담당자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선진화과
학교교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관 및 단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학교교사와 독서단체는 '입시제도의 변화 등 교육정책이 독서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실질적으로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은 당장 바뀌기가 어렵다면, 교육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일선에서는 구심조직의 필요성이 가장 크게 요구되고 있다. 학교교사와 독서단체는 두 번째로는 '독서의 본질, 즉 즐거움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독서마인드를 확산시켜야한다'고 하였고, 세 번째로는 '구심조직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독서업무 담당자들은 업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심조직의 필요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

로 꼽았다(〈표 9〉 참조).

⑤ 전담기구의 지원 사업

전담기구가 생긴다면 전담기구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면 하는 사업으로는 독서단체를 제외하고 독서업무 담당자들의 1, 2, 3순위 의견이 모두 일치하였다. 1순위로 '참신한 양질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아이템 혹은 프로그램 개발 지원', 2순위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연수 실행', 3순위 '독서문화진흥 관련 사업별 매뉴얼 개발, 보급'을 들었다. 반면 독서단체에는 '사업별 매뉴얼 개발', '소외계층 지원사업', '참신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지원' 순으로 답변하였다(〈표 10〉 참조).

〈표 9〉 독서문화진흥사업 해결점

구분	다수 의견
교육청 담당자	구심조직의 필요성
학교교사	입시제도의 변화 등 교육정책의 변화
사서	구심조직의 필요성(대도시, 중소도시)/교육정책의 변화(읍면)
기관 및 단체	교육정책의 변화와 독서마인드 확산

〈표 10〉 전담기구의 지원 사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청 담당자	참신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담당자 전문 교육, 연수	사업별 매뉴얼 개발, 보급
학교교사	참신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담당자 전문 교육, 연수	사업별 매뉴얼 개발, 보급
사서	참신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담당자 전문 교육, 연수	사업별 매뉴얼 개발, 보급
기관 및 단체	사업별 매뉴얼 개발, 보급	소외계층 지원 사업	참신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⑥ 성과가 좋다고 여겨지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

독서업무 담당자들이 독서문화진흥사업 중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표 11>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아침독서운동’을 꼽았고, 사서교사는 ‘도서관주간 및 독서의달’의 각종 독서문화행사 및 독서운동’을 꼽았으며,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꼽았다. 독서단체는 방과 후 각종 독서프로그램을 꼽았다. 이를 볼 때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성과가 좋다고 하였다. 그 중 독서본질에 가장 가까운 ‘아침독서운동’이 성과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아침독서운동’이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을 해야 한다.

⑦ 선진화되기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는 사업 분야

독서업무 담당자들은 대부분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과 문화예술과 결합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1순위로 꼽았다. 이는 독서문화 선진화 방안은 역시 독서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독서의 자율성을 위해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과 즐거움으로 유도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결합한 놀이 개념의 독서프로그램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학습능력의 기초가 되는 독서능력 신장에도 기여하기 위하여 학습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독서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독서단체에서는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2순위로 제시하였다(<표 12> 참조).

<표 11> 성과가 좋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

구분	다수 의견	
교육청 담당자	아침독서운동	
학교교사	일반교사	아침독서운동
	사서교사	각종 독서 문화행사
사서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대도시)/아침독서운동(중소도시, 읍면)	
기관 및 단체	방과 후 각종 독서문화 프로그램	

<표 12>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보완 사업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교육청 담당자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문화예술과 결합한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학습능력 증진 할 수 있는 독서자료 및 독서프로그램 개발
학교 교사	일반교사	문화예술 +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독서조직의 개발, 활성화
	사서교사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학습능력 증진할 수 있는 독서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서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문화예술 +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대도시, 읍면)/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문화예술 + 독서프로그램 개발 보급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대도시, 읍면)/문화예술 + 독서프로그램개발 보급(중소도시)	학습능력 증진할 수 있는 독서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대도시, 읍면)/독서매개자 개발(중소도시)
기관 및 단체	독서환경 및 시스템 조성	독서 소외계층에 관한 사업 지원	학습능력 증진할 수 있는 독서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⑧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p>교육청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부터 독서교육 - 지역별, 기관별에 따라 독서문화 사업이 차이가 나므로 전국적으로 고른 발전을 위해서는 구심조직이 필요함 - 언론을 통한 독서문화 캠페인 - 학교교육과 연계된 독서문화사업 - 학교도서관에 전담인 사서교사 배치 - 독서업무담당자 연수
<p>학교 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평생독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배정을 통한 체계적인 독서교육 실시(3명) - 독서의 출발점은 학교도서관, 전문인력으로 사서교사 배치(2명) - 예산이 적은 농산어촌 학교에 장서구입예산, 독서행사, 인력, 시설 등이 부족. 독서의 빈익빈 부익부 문제 해결 -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에 독서교육 지원사업 중, ① 검증된 강사 채용, ② 수업지도안 담당자에게 제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연구 및 대표도서관으로 위상 정립 - 연극놀이를 활용한 책읽기 심화 연수
<p>사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본질과 도서관 정체성에 부합된 참신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10명) -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 필요(인프라조성, 각종 독서문화사업 지원)(7명) - 담당사서의 전문성 확보(7명) - 독서 환경 조성, 인프라 구축(5명) - 학교와 공공도서관 연계 필요(5명) - 언론매체를 통한 범 사회적 독서문화사업 전개(3명)
<p>독서 관련 단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독서이력철 기록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문체부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문화진흥사업 등으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분화의 우려가 됨. 문광부에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주도한다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적합할 듯하다.(독서문화연구소, 위로부터 정책으로 민을 깔고 가려하기보다 민간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 생활 밀착형 독서사업이 필요하다.(한국사립작은도서관협회), - 문광부와 교과부의 독서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도서관 사서의 어린이책에 대한 이해가 절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는 단기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보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지역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고민하여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하는 필수적이다.(사단법인 어린이도서관연구회) - 일상적인 독서가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운영할 전담 사서를 배치하는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한다. 민간도서관에 운영비 지원 증액, 소외계층 복지시설에 독서환경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행복한 아침독서의 교육정보지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행복한 아침독서) - 일회적, 일년 단위의 독서문화진흥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장기적 사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통합하여 협력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자가 한 명인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으니 상설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국민독서문화진흥회), - 그동안 다양하게 개발, 보급된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프로그램은 우수하지만 기존 독서프로그램과의 차별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아 수정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학습 증진, 발달적 욕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프로그램 개발이 요망된다.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체험 기회를 지역의 문화, 역사, 인물, 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한국독서지도연구회), - 어린이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독서문화진흥사업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도동리(도서반연합) 같은 모임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작은 책모임을 통해 대면하면서 즐거운 책읽기, 행복한 나누기, 평등한 누리기가 되었으면 한다.(학교도서관문화네트워크), - 영국의 북 토크제도와 같은 도서바우처 매년 1회 지급, 가족 단위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업의 개발 시행.(한국출판연구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강남에 위치해 있어 강남권을 벗어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며, 또한 온라인상에 직접 들어가야 정보를 찾을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이들 이외에는 도서관의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또한 회원관리가 상당히 소극적이며, 참여회원 모집 수가 제한되어 있어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적이다.(독서치료학회), - 입시제도와 학교 평가방법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교사의 독서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부족하여 독서교육의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독서토론사회실천연대)

(2) 학부모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으로 나누어 설문을 배포하였다. 대도시에는 70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는 각 50부를 배포하여 회수율은 대도시 94.2%, 중소도시 74%, 읍면 90%의 회수율을 보였다.

① 독서문화진흥사업에 참여한 동기

학부모들은 지역과 무관하게 '독서습관을 들이기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부모들은 그 다음으로 '글쓰기 논술 능력 향상을 위하여'와 '학습에 도움받기 위하여'를 비슷한 비율로 꼽았으며, 중소도시 학부모들은 두 번째로 '선생님의 권유', 세 번째로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글쓰기 능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다. 결과를 미루어보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독서습관을 위하여, 그리고 학교 학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독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표 13〉 참조).

②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대도시 지역 학부모들은 강제된 사업으로 독서의 본질인 즐거움과 자율성이 저해될 소지가 많다(55.4%), 독서를 위

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다(27.7%), 영상매체 등의 발달로 독서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다(23.6%) 순으로 답변하였다. 중소도시 지역 학부모들은 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되지 않아 독서의 생활화로 연계되기 어렵다(25.5%), 사회적 시스템 및 인프라 부족(23.4%), 강제된 사업으로 자율성 저해의 소지가 있다(19.2%) 순으로 답변하였다. 읍면 지역 학부모들은 독서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하다(30.2%), 독서의 생활화로 연계되는 것이 어렵다(25.5%),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우려(23.2%) 순으로 답변하였다.

학부모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향후 독서문화진흥사업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선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이전에 독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국가적, 지자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나머지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칠 때 고려해야 할 것들로서 강제된 사업, 학교 성적 및 입시에 반영되는 평가 중심의 학습 독서는 지양되어야 하며, 독서의 생활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표 14〉 참조).

〈표 13〉 자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참여 동기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대도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글쓰기·논술능력 향상	학습에 도움/ 선생님의 권유
중소도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선생님의 권유	글쓰기·논술능력 향상/ 학습에 도움
읍면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글쓰기·논술능력 향상/ 학습에 도움	선생님의 권유/ 독서방법과 기술 획득

〈표 14〉 자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문제점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대도시	독서의 본질 훼손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	영상매체 등의 발달로 독서흥미 유발이 쉽지 않다
중소도시	사업간 유기적 연계 어려워 독서의 생활화로 연계 어려움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	강제된 사업으로 자율성 저해
읍면	사회적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	사업간 유기적 연계 어려워 독서의 생활화로 연계 어려움	독서의 사교육화에 대한 우려

③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흥미있는 프로그램, 독서소의계층(저소득, 농산어촌, 어린이집, 직장엄마), 부모교육, 방과 후, 주말, 방학 중, 학교에서의 독서치료프로그램).(7명) - 독서의 본질(즐거움, 자율성, 편안함)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3명) - 책임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과 적극적 예산지원(장서확보).(2명) -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독서 시간이 배정.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진흥사업은 긍정적이나,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대입과 연결시키는 강제적이고 왜곡된 독서활동은 지양되어야 한다. 어린시절부터 독서의 즐거움을 알고 자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하는 데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독서관련 행사가 출판사의 책 홍보와 구매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비취지는 경우가 많다. 좀더 본질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이 되길 바란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사업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정책을 시행하여 장기적인 효과가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5명) - 공공도서관 예산 부족으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한데, 독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바둑, 만들기 등) 개설은 적절하지 않다. 독서수준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대별 권장도서 선정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쓴 글을 책으로 만드는 출판과정을 체험할 수 있으면 한다. 가정에서도 지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그 외,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5명)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가 즐거울 수 있도록 유아 프로그램부터 초등학생으로 이어졌으면 하며, 부모와 함께 체계적이며 재미 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가정과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4명) - 독서가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과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게임을 하듯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었으면 하며,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업이 펼쳐지기를 바란다.(2명) - 집 가까운 데 도서관이 많이 생겨 걸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 학생

전국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단위 지역을 임의로 표집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50부씩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청소년 설문 회수율은 대도시 88%, 중소도시 74%, 읍면 33%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의 설문 회수율은 대도시 46%, 중소도시 100%, 읍면 96%의 회수율을 보인다.

①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점

청소년들은 어느 지역에서나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실질적으로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독후활동이 많았으면 한다는 답변이었다. 어린이들은 지역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는데,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며, 독후활동이 다양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읍면지역 어린

이들은 책 구하기가 어렵다는 답변도 많았다 (<표 15> 참조).

②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방안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면 하는냐는 질문에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책이 외의 다른 매체로도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독서방법이나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 높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다른 활동 없이 그냥 책만 읽고 싶다는 의견과 상이나 평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답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독서매체의 다양성과 독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읽기 자체에 대한 몰입과 무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어린이들은 그냥 책만 읽고 싶다,

독서방법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다, 전자매체로도 책을 읽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독서수준과도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 아직 독서에 흥미가 부족하거나 독립적인 책읽기가 힘든 어린이들인 경우는 독서지도를 통해 독서흥미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독서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책을 읽는 어린이들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책 읽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 필요하며, 어린이 · 청소년들의 독서자료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책 이외의 전자 매체 등의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의견으로 읍면 지역 어린이들은 ‘게임으로 책이 즐거워졌으면’한다는 의견과 독서와 관련된 이벤트가 더 있었으면 하고 원하였다. 이는 읍면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표 16> 참조).

<표 15>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불만족

구분	청소년			어린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1순위	책 읽을 시간 부족	책 읽을 시간 부족/독서활동의 다양화	책 읽을 시간 부족	책 읽을 시간 부족	독서활동의 다양화	독서활동의 다양화
2순위	독서활동의 다양화	독서활동의 다양화	독서활동의 다양화	독서활동의 다양화	책 읽을 시간 부족	책 읽을 시간 부족
3순위	책 구하기 어려움	무응답	무응답	그밖에	그밖에	책 구하기 어려움

<표 16> 어린이 · 청소년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방안

구분	청소년			어린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1순위	다양한 매체로 독서	다양한 매체로 독서	독서기술과 방법	독서기술과 방법	다양한 매체로 독서	다양한 매체로 독서
2순위	그냥 책만 읽고 싶다	그냥 책만 읽고 싶다	다양한 매체로 책읽기	독서매개자가 필요/다양한 매체로 독서	그냥 책만 읽고 싶다	독서기술과 방법
3순위	독서기술과 방법	독서기술과 방법	그냥 책만 읽고 싶다	독서기술과 방법	독서기술과 방법	그냥 책만 읽고 싶다

③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 자유 의견

구분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개선점 및 바라는 점	
	청소년	어린이
대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후감 쓰지 말고 책만 읽고 싶다(3명) - 교육용 만화책 등 흥미로운 책 발간(2명) - 독서본질에 충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4명) - 도서관 운영시간 연장(2명)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사업보다는 부모님, 선생님 등의 기성층의 의식을 바꾸는데 노력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도서관에 책의 종류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종류로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3명) - 학교도서관에서 진흥사업이 더 많이 실행되어야 한다. - 독후감을 1주일에 3번 쓰면 좋겠다. - 새로운 문화 활동이 생기면 좋겠다.
중소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본질(자율성, 무상성) 프로그램 운영(4명) - 학교에 독서클럽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고, 독서를 전적으로 학생 스스로에게 맡기지 말고 일정 수준은 학교에서 맡아서 활동을 장려(3명) - 도서관 서비스(운영시간, 사서의 친절함) 개선(2명) - 그 외 E-book 적극적으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서비스(대여수, 신속한 입수, 예견출입 등) 개선(4명) - 도서관 장서(다양한 종류의 책, 영상, 전자매체) 개발(4명) - 학교 독서시간 확보 및 독서본질(추천도서 폐지, 독후감 및 그리기 대회 평가, 강제성 독서)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3명)
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이 많고 종류가 많았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미있는 책(판타지 소설) 구입(5명) - 독서 본질에 충실한 프로그램 필요(4명) - 그 외 공부할 때 도서관에 오면 자리가 부족함.

3.2.2 요구분석에 의한 제안

첫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독서문화진흥 담당자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의 미비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지만, 이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가의 장기적인 정책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가장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것은 독서문화 주관 기관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이나 지원 사업이 어려워 서로 업무 협력도 안 되며, 중복 사업으로 예산 낭비의 우려를 꼽았다. 이에 담당자들은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중심조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들었다. 이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문화진흥 업무 전담조직을 만들어 민관 협력과 연대를 꾀한다.

둘째, 전담기구에서는 독서담당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최종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독서매체의 다양성과 독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읽기 자체에 대한 몰입과 무평가성을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대체로 어린이들은 책 읽은 후 다양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그냥 책만 읽고 싶다. 독서방법이나 기술을 배우고 싶다. 전자매체로도 책을 읽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인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전개될 것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사회(도서관), 학교, 가정과 연계된 사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면서 편리하고 지속적이며 공간별, 시기별, 자녀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연계되기를 바랐다. 독서담당자들은 참신한 양질의 독서문

화진흥사업 아이템,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 연수, 사업별 매뉴얼 개발·보급,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바랬다. 양질의 독서문화진흥사업 아이템 개발과 담당자들의 교육연수 등으로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질을 높이고, 사업별 매뉴얼 개발과 독서 소외계층에 관한 지원을 통해 지역적으로 균등한 독서문화진흥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먼저 독서환경 및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체계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서시설, 독서자료, 독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독서시설은 사회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기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시설을 보강하고, 무엇보다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 문고, 새마을문고 등이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겠다. 공간적인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독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과는 달리 독서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율참여형,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독서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는 독서자료의 양을 늘리고 다양한 종류의 독서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이다. 또한 종이책 이외의 웹, 모바일 등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요구도 컸다. 또한 독서 전문 인력의 보강에 있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가 급선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의 양성과 재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그리고 교육청의 독서문화진흥업무 담당

자, 학교교사, 독서단체 담당자들의 연수 및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여야겠다. 나아가 학부모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은퇴 노인 교육, 북시터 교육 등을 통해 독서매개자를 개발, 양성하여야겠다. 이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책과 사람을 매개하는 사회적 독서 촉진자를 개발, 양성하여야겠다.

넷째, 독서문화진흥담당자, 학부모, 학생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신한 양질의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공공도서관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지역별로 각기 도서관이 처한 환경이 다르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경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여 문화예술과 결합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 요구가 높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시설, 독서자원, 인력 등의 미비로 독서환경 조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만이 가지는 특성을 살려서 지속적 장기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행해온 프로그램 중 검증된 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여 타 기관과 차별되는 공공도서관 고유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어야겠다. 또한 학교에서 진행된 독서프로그램들이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풍부한 독서자료를 개발, 지원하고, 독서지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사서교사의 배치하며, 독서시간 확보와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속에 독서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외 전국 단위의 독서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독서문화진흥 전담조직에서 준비부터 계획, 과정, 평가까지 지

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질을 높이고 적절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평가가 미비하였다. 독서문화진흥법의 시행에 의해 각 지자체는 물론 독서관련 기관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이를 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질을 높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통하여 잘되는 사업 혹은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여 보급하고, 잘되지 않는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은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를 꾀한다.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은 사업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절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선진화 방안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시사된 바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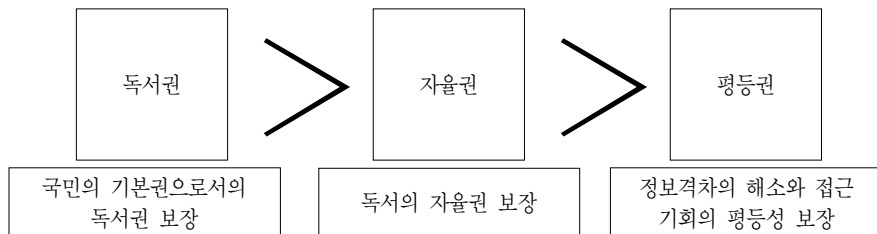
4.1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기본 정책 방향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의 근간은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의 목적과 2008년에 수립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가치에 근거해서 그 정책의 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독서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하에 어린이·청소년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은 <그림 1>의 독서관 자율권, 평등권 등을 핵심 가치로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은 이러한 핵심가치를 토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독서관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로서 계층에 따라, 지역에 따라, 대상에 따라 제한되거나



<그림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

혹은 선택되어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자율권은 독서의 자기결정권, 독서자료 제공에 있어서 문화적 다양성, 다원성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은 스스로 독서의 즐거움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독서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등권은 지식정보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에게 독서활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독서라는 행위의 개인적 영역을 전혀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 개인적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불

편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공공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등 공공성과 안정성, 그러면서도 효율성이 함께 보장되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기본 정책방향은 독서의 본질⁴⁾인 즐거움과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어린이·청소년들의 개인의 독서행위에서 점점 사회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오늘날 독서는 공교육의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기초 기술로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일상생활 문화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최근 독서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학교 독서관련 진흥 정책이 기능 및 학습독서로 유도되고 있고 또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도입은 대학 입시용으로 변질되어가는 등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독서의 본질을 왜곡한 체 정책이 입안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초중

4) 독서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알베르토망구엘(2000)은 독서란 내 영혼과 감정을 풀어놓는 재창조의 행위라 정의하고 있으며, 다니엘 페낙(2004)의 독자입장에서의 독서의 권리를 책을 읽지 않을 권리, 중간을 건너뛰어 가며 읽을 수 있는 권리, 끝까지 읽지 않을 권리, 다시 읽을 수 있는 권리, 아무 책이나 읽을 권리, 보바리즘에 빠질 수 있는 권리, 어떤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권리,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을 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즉, 독서의 본질이 즐거움과 자율성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손정표(1999)는 독서의 목적을 여러 학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토대로 교양을 위하여, 연구를 위하여, 생활정보와 수단을 얻기 위하여, 오락을 위하여,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로 밝히고 있다. 최윤정(2001)은 “독서는 아주 개인적인 체험이다. 독서는 한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어 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무엇이다.”라며 독서의 본질은 삶의 일부이며, 그것은 체험에서 얻어진다고 말한다. 김정근(2002, 3)은 독서의 목적을 3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제 1영역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의 수단인 ‘각성을 위한 책읽기’와 제 2영역은 능력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성공·성취의 수단인 ‘지식을 쌓는 책읽기’와 제 3영역은 독서로 인간을 귀납적으로 이해하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고, 장애를 뛰어넘게 해주는 ‘성숙을 위한 책읽기’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 김수경(2006)은 여러 학자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 독서의 본질을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상욱(2007) 독서의 궁극적 목적은 책을 읽는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책을 통해 ‘간접 체험’을 하고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는 소박한 말이 독서의 본질이라 하고 있다. 이상의 학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고려한 독서의 본질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즐거움(pleasure)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멀티미디어 시대에 있어 어린이·청소년들이 독서를 하기 보다는 영상 및 디지털 문화와 갖가지 야외활동, 스포츠 등에서 즐거움을 구하고 있지만, 독서도 고유한 즐거움이 있다는 점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정보와 지식의 획득(information)이다. 책을 통하지 않고는 심층적인 정보와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3) 영혼의 문제, 즉 정신의 양식(inspiration)이라는 것이다. 독서는 그 자체가 마음을 갈고 닦는 일, 즉 교양과 수양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교에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근본적으로 독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는 사생활 침해 소지, 사상의 자유를 막는 행위이며, 어린이·청소년의 자율적 참여를 방해하는 것으로 강제성이 수반되어 독서가 의무화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어 즐거움과는 거리가 멀어 질 수 밖에 없다. 독서문화진흥 기본방향은 독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고 싶게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독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누구나 스스로 자신이 주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기본 정책방향은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독서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정서함양은 물론 독서능력 향상을 통한 지식경쟁력 강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4.2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인프라는 독서시설, 전문인력, 독서자료로 이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증설을 통한 독서문화 기반 시설 정비
-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문고, 아파트도서관⁵⁾ 등 독서문화 기반 시설 정비
- 어린이집, 유치원,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독서문화 기반 시설 적극 지원
- 학급문고 정비 및 활성화 지원

2) 전문인력

-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통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⁶⁾
- 공공도서관의 인적자원 확충
- 민간도서관 사서 인력 파견이나 인건비 보조금 지급
- 교육청 및 지자체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자, 학교교사, 독서단체 담당자들의 연수 및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 보강
- 어린이·청소년 담당사서의 양성과 재교육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 학부모, 자원봉사자, 은퇴노인, 북시터 등의 교육을 통해 독서매개자 양성

5) 아파트도서관에 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제5항의 규정

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22호 제2조(문고의 도서가격)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문고에 비치하여야 하는 도서의 총 가격은 85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서가격의 상승률이 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다시 정할 수 있다.

6)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인 사서교사를 배치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학교 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건 이외에 사서교사 배치 요인이 학생들의 학업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학교도서관에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다.

3) 독서자료

- 다양한 독서자료와 양적 확보를 위한 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⁷⁾
- 국가적인 차원의 증장기 계획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장서개발
- 웹 독서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간적인 제약을 보완하고 디지털관련 독서자료를 확충. 웹 독서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독서종합시스템과는 달리 독서의 본질을 반영하는 자율참여형, 개방형, 디지털 콘텐츠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육과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독서문화진흥 업무에 관해 서로 협력
-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학교도서관 진흥 등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독서시간확보, 장서확충, 전담인력배치) 조성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독서문화진흥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기반 국민 독서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 기반 국민독서문화진흥 인프라 조성에 주력한다. 즉 독서시설 보완 및 증설, 독서자료 및 콘텐츠 개발과 보급, 독서 전문인력 양성 훈련 및 교육을 담당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사업으로 특화하여 구심조직으로 역할
- 독서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는 범국민 독서운동 전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전문적인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청소년 관련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과 실행을 담당⁸⁾

4.3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전담조직 구성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문화진흥 정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모든 부처가 함께 힘써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며, 재정 및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구심적인 조직부서의 역량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조직 구성에 따른 역할 분담을 통해 독서문화진흥 관련 정책 수립과 각 부처 및 부서,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력체계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야겠다(〈표 17〉 참조).

- 「독서문화진흥법」의 실질적인 실행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정부 부처인 교

7) 도서관 자료구입비 감액은 도서관의 존재 의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출판사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양서 출간을 꺼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8) 본 연구결과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담 구심조직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그동안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온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독서자료 관련 인프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개발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표 17〉 독서문화진흥 관련 담당부서의 업무⁹⁾ 및 역할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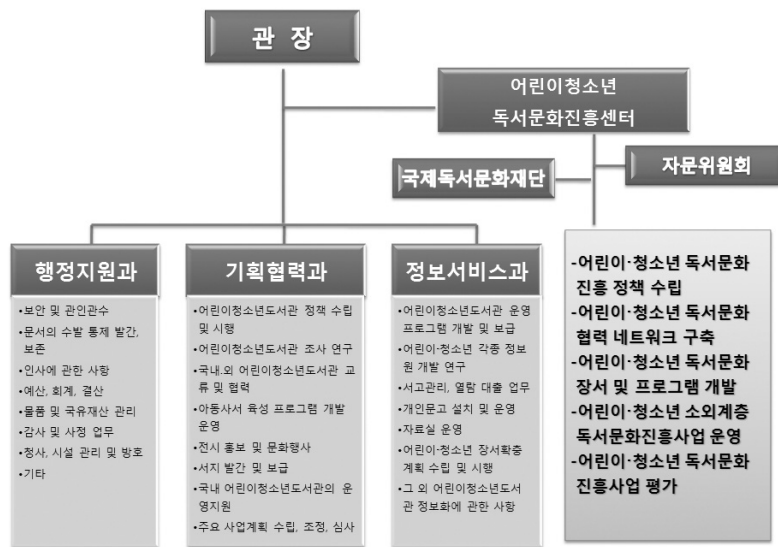
기관	담당부서	담당업무	역할 모색
도서관 정보 정책 기획단	도서관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독서 관련 통계 및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문화 현황 파악 • 독서문화 정책 지향점 모색 • 독서문화진흥 정책개발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 각 부처 및 부서 독서문화 진흥업무 조율 • 유관 기관간 업무협력체계 마련 • 재원확보 및 지원 • 인력양성계획 수립 • 독서문화 평가체계 마련 및 실시 • 범국민 독서운동 전개
	도서관 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독서진흥 업무 총괄 	
국립 중앙 도서관	담당부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서관법에 업무내용만 명시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8항.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활동 지원 및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 조사/연구 • 범국민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문화진흥 네트워크 구축 • 도서관 관련 민간 네트워크 구축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기획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어린이청소년도서관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관한 사항 • 어린이청소년관련 서지발간/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독서생활화 및 독서능력 향상 방안 모색 • 어린이·청소년 독서권, 자율권, 평등권 확보 • 어린이·청소년 독서자료 개발 및 보급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유관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정보 서비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개설 및 보급에 관한 일 • 국내·외 어린이청소년관련 자료조사 	
교육 과학 기술부	학교 선진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독서교육 기본정책 수립·추진 •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시·도교육청 간 독서교육 운영 정보 공유 지원 • 그 밖에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연계 사업 추진 •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 (독서시간확보, 장서확충, 전담인력배치)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독서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 • 독서 생활화를 위한 환경 조성 • 전 국민 대상 독서교육 확대 • 연중 독서운동 전개 •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 독서자료(인쇄매체, 멀티미디어 등) 발굴 및 보급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내에 (가칭) 어린이
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설립.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독서문화진흥 협력

네트워크 구축, 어린이·청소년 독서문
화진흥을 위한 장서개발 및 프로그램 개
발과 보급, 어린이·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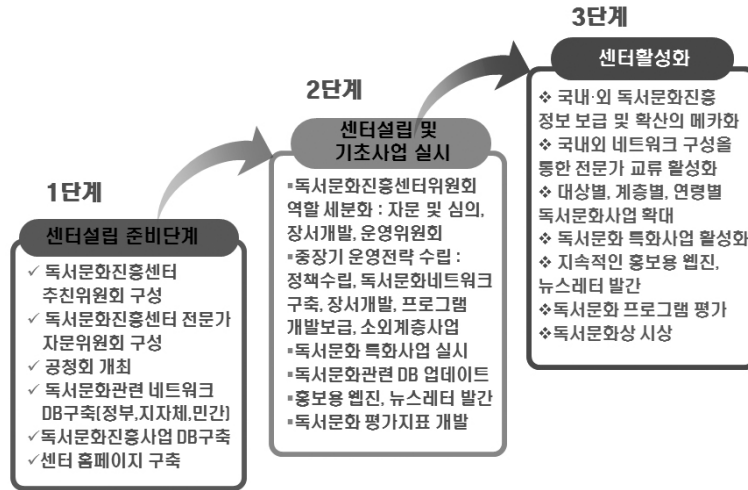
9) 각 부처별 홈페이지 참조(2010.8 기준).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 수행(〈그림 2〉 참조)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설립 절차 마련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준비위원회 구성¹⁰⁾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공청회 개최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조직 구성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운영전략 수립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운영전략 수립에 따른 업무 개시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단계별 운영 로드맵 마련(〈그림 3〉 참조)
 -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담 직원은 정책의 일관성 및 효과성 유지를 위해 개방형 전문 보직이나 장기 임기제 채택
 -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장기적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독서문화진흥사업 담당자를 전문성을 갖춘 개방형 보직으로 하거나 실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보장하는 임기제 운영 방안 고려
 - 더불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도 독서문화진흥사업 담당자 배치



〈그림 2〉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조직도(안)

- 10)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준비위원회의 역할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독서문화 관련자 대상 공청회 개최
 -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구성 후, 이 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상설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위원회로 전환



〈그림 3〉 (가칭)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센터 운영 로드맵

4.4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추진방향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한 국내·외 현황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선진화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인 독서권, 자율권, 평등권과 독서의 본질에 바탕을 둔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비전과 목표 그에 따른 추진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자면 〈표 18〉과 같다.

〈표 18〉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비전 및 전략

비전	독서의 생활화로 정서함양 및 지식경쟁력 강화				
목표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평생 독자 만들기				
추진 전략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생활화 및 독서능력 향상	독서의 자율성과 평등성 보장	독서자료 개발 및 보급	독서문화진흥 활동의 조직화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추진 과제	①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 ② 독서능력 향상 ③ 학교 독서시간 확보 ④ 가정, 학교, 사회로 이어지는 평생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⑤ 어린이·청소년의 자율적 독서 권장 ⑥ 민/관 범국민 독서운동 전개 ⑦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독서 캠페인 전개	① 어린이·청소년 독서 자율권 보장을 위한 독서마인드 확산 ② 어린이·청소년의 자율적 독서를 위한 기존 독서활동 평가를 통한 제구성 ③ 독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 ④ 독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소외계층 지원 사업 강화	① 발달단계별 독서자료 개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② 계층별(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 상황별 독서자료 개발 ③ 독서 수준별 독서자료 개발 (예, 독서부진아를 위한 미국 A-Z 단계별 독서자료) ④ 어린이·청소년 관련 독서 정보 DB 구축 및 운영 ⑤ 어린이·청소년 우수도서 출판 및 보급 ⑥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보급	① 학교도서관-공공도서관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MOU) ② 도서관 관련 단체/민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③ 다양한 독서동아리 조직 및 활성화 ④ 도서관 및 독서교육 담당자 교육 및 커뮤니티 조직 (학부모, 교사, 사서, 자원봉사자 등) ⑤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⑥ 국제독서문화재단 설치	①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② 우수 독서프로그램 매뉴얼화 및 보급 ③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상 시상 제도 제정 및 추진 ④ 독서문화 프로그램 평가체계 마련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첫째,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으며, 둘째,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에 관련된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계된 이들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이들의 요구를 수렴하였으며, 셋째, 국내·외 독서문화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조사·분석 및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에 관한 요구분석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첫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기본 정책 방향 수립, 둘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 인프라 구축, 셋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 전담조직 구성, 넷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 독서문화진흥 관련 부처에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고 협력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가적으로 독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는 다양한 주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적인 구심체로서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필요하다면 법안을 개정을 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진흥을 담당할 전담기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관련 부처간의 역할 분담은 전체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정책 주관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총괄하며, 성인을 위한 독서문화진흥 정책 수립과 사업은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시행한다. 이때 각 독서문화진흥 관련 기관과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어야 하겠다.

넷째,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진흥 전담기구를 구성한다면 해당 기관에서는 자체 정책에 근거하여 사업을 평가하고 조직의 재편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며 전담인력은 순환보직 형태가 아니라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청소년 독서진흥 정책 방향 및 실천 방안 모색』.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2]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 열린정책세미나 자료집 1』.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3] 국립중앙도서관. 2005. 미래의 꿈! 어린이와 도서관. 『2005년 열린정책세미나자료집 2』.
- [4] 김상욱. 2007. 기로에 선 학교의 독서교육. 『독서의 달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7. 9.: 3-19.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5] 김수경. 2006. 독서의 본질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35-264.
- [6] 김정근. 2008. 새삼스레 독서교육의 방법을 생각한다. 『國會圖書館報』, 5: 48-57.
- [7] 폐낙, 다니엘. 2004. 『소설처럼』. 이정임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 [8]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8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9] 문화체육관광부. 2009. 『2009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11]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0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 [12] 손정표. 1999. 『신독서지도방법론』. 대구: 태일사.
- [13] 망구엘, 알베르토. 2000. 『독서의 역사』. 정명진 옮김. 서울: 세종서적.
- [14] 장지숙 외. 2010.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정책 분석: 중장기 계획과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15-28.
- [15] 최윤정. 2001. 『그림책: 평론집』. 서울: 비룡소.
- [16] 한국도서관협회. 2008. 독서문화진흥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 [17] 한국도서관협회. 2010. 책읽는 도시-성과와 과제. 『2010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 [18] 황금숙 외. 2006.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19] Direction du Livre et de la Lecture. 2007. "La lecture publique en France". *Fiche n°9*, 2007.12.
- [20] IRA(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online]. <<http://www.reading.org>>.
- [21] OECD. 2009. *Reading Literacy: A Framework for PISA 2009*. OECD.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06. *Seek for the Policy Direction and Fulfill Way of Reading Promotion for Young Adult*.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2]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2006. *2006 Opening Policy Seminar: Seek for the Way of Developing for Children Library*.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 [3]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2005 Opening Policy Seminar: Dream of Future! Children and Library*. Seoul: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 [4] Kim, Sang Wook. 2007. "Reading education of school at the crossroads." *Seminar for the Memorial Month of Reading*, 2007.9: 3-19.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5] Kim, Soo Kyoung. 2006. "The true meaning of reading and operation of reading progra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7(3): 235-264.
- [6] Kim, Jung Geun. 2008. "We consider all the more keenly the way of reading education." *National Assembly Library Review*, 5: 48-57.
- [7] Pennac, Daniel. 2004. *Comme un Roman*. Translated by Jung Im Lee. Seoul: MoonJi Publishing.
- [8]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8. *2008 Annual Report of Reading Promo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9]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09. *2009 Annual Report of Reading Promo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2010 Annual Report of Reading Promotion*.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2009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Reading for Nation*. Seoul: Korean Publishing Research Institute.
- [12] Son, Jung Pyo. 1999. *New Reading Guidance Methodology*. Daegu: Taeilsa.
- [13] Manguel, Alberto. 2000. *A History of Reading*. Translated by Myoung Jin Jung. Seoul: Sejong Books.
- [14] Jang, Jisuk, et al. 2010. "A study on public librar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the long-term planning and organiza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2): 15-28.
- [15] Choi, Youn Jung. 2001. *A Picture book: Review*. Seoul: Biroyngso.

- [16]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8. "The way of collaboration with a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or to push ahead with the reading culture promotion plan." *Seminar for the Day of the Reading and Publishing Expert of Seoul International Book Festival*.
- [17]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reading cities: Effort and task." *Seminar for the Day of the Reading and Publishing Expert of Seoul International Book Festival*.
- [18] Hwang, Gum Sook, et al. 2006. *A Basic Study on the Promotion of the Reading Cul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Seoul: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